

##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

시편37:1-8, 빌립보서 4:4

###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시고, 또 에덴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12 가지 안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증거하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램넛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을 하였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으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힘들어한다. 그러나 다른 근본적인 불행은 없다. 근본적으로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항상 도전해야한다.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쉽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해야 한다. 말씀 포럼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다.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때문이다. 이게 많으면 복음을 누릴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까지 녹아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가. 누가 이것이 불행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다 여러분이 만든 기준과 수준, 표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어야 한다. 그래야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감사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 예비하셨다. 왜 묻이 안 열리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이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없거니와 올바르게 봉사할 수도 없다.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마귀의 최대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기도하게 되면 다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동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한다. 영혼이 회복될 때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것이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었지만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 등 성도들 간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 팀이 도착한 유럽의 첫 도시로서 로마의 장성들이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이 장성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다. 내 주장, 의견이 많다면 분열이 온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 그런 갈등과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립보교회는 유럽 복음화와 로마복음화를 위한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교회였다. 사도행전 16 장에 보면 빌립보교회를 설립하게 된 과정과 3명의 개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루디아와 귀신들린 점쟁이와 로마 감옥의 간수였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 세워져서 빠르게 부흥한 반면,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빌립보교회에게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다.

**1. 첫 번째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 쓰드리겠다.** 원색적인 복음은 창세기 3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근본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불신앙, 죄,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빌립보교회에서는 이것을 검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1)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1 장 6 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2) 복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뛰어넘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시 빌립보교회에서는 중요한 두 사명자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4 장 2 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고 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왜 두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적인 기쁨은 모든 문제와 환경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이다. 다른 기쁨이 있다. 오직 여호와와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쫓을 수 있다.

(3) 복음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 장 10 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No 를 Every 로 만드는 것이다. 현장에 가면 아무 것도 없다. 믿음도, 사랑도, 원니스도, 참된 기쁨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 현장을 여러분이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램넛 7 명은 모두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다. 요셉은 가정문제가 있었지만 애급 총리가 되었을 때 지극히 선한 선택을 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미리 보낸 것이 아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는데도 감옥에 갔다.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상태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다투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원수 갚지 않았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다. 오히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발판 삼았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한 선택이 복음, 오직 복음을 뛰어넘어 완전복음을 실현한 영적서밋들의 모습인 것이다.

(4) 복음의 여정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빌립보서 1 장 29 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순교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다.

(5) 참된 복음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자량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다. 세상적인 지식, 철학, 과학이 배설물이라는 말이 아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린이와 같이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적 수준을 가지면 최고의 인격, 영적인 수준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겸손해야 한다.

(6)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시간표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홀연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7)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보겠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여러분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갈등과 염려 속에 있는가.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뜨겁게 간구하면 두 가지가 오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형통하는 축복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기도할 때 참된 평안과, 형통하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2.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한 후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1)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되게 만들어야 한다. 사탄은 반대로 분열시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이는 원니스를 의미한다.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는 겸손과 존중을 의미한다.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는 협력과 돕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능력이다.

(2)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순종, 복종, 겸손이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3)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기도와 준비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원니스가 이루어진다.

(4)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목표를 향하여 달음질하여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된 행복이 계속될 것이다.

(5)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짜증, 원망,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적인 선택만 하기를 바란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눈물어린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6) 4장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꾸시니라”라고 권하고 있다. 다 용서하고 양보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예비해두고 계시다.

(7) 4장 8절에서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절대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8) 결국 이러한 복음들과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다.

결론으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붙잡을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오직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24시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할 필요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여러분이 불만, 불평, 원망, 참된 행복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오직 주님으로 행복하고 오직 복음으로 감사하며 누리면 된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4차 산업의 응답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나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고백을 해보기를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영적플랫폼, 영적과수망, 영적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현장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